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마가복음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5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마가복음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 ②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 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주 예수만을 온전히 전하라”

죄인들을 위해 다 내어 주신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제자에게 나누셨습니다.
은총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양식
우리에게 믿음으로 먹이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제자에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을 주장하고 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평안이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전하라 하십니다.



떡을 떼듯이 자신을 떼어주신 생명의 주여!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믿음과 기도로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 늘 거하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입술로 이 복을 전하게 하소서

2005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 책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애에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1절).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롬 3:23).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14-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귀신들도 내어 쫓으십니다(26절, 39절).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도 떠나게 하십니다(42절).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세있는 새로운 교훈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는 말이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5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는, 이른바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 참람죄로 몰고 갑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7절). 구약에서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10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열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23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비판적으로 질문합니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24절).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이 시창해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주인이 자신이심을 밝히십니다(27절). 바리새인들은 많은 금지조항을 부가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정결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요 1:14).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기도 제목 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엿보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회당에서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4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참뜻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결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계속하십니다(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율법의 완성자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선포되면, 악한 자들은 회개하기보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논을 시작합니다(6절).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10절).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떠나갑니다(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기 위하여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禮)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16:2).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죄인의 길에서 지 않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11-12절).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막 3:35).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24-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20절).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추수 때에 수확할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에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밭, 가라지만 맺는 밭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마 13:40-4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청중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천국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귀신들린 광인(狂人)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곳입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도 그 광인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매어 놓은 쇠사슬과 고랑도 쉽게 끊어버릴 만큼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일만 합니다. 군대귀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9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시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거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7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인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제어하시고 죄인들을 사단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입니다(요 10:10).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헤메는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복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요 7:37-38).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계 22:1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요”(2절). 그러한 놀라움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3절).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표적입니다(막 16:20).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 복음의 선언과 전파를 배척한다면, 이적을 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과 배척을 받아가며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그는 성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과 배척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일꾼은 자신의 생명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배척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고난을 받을찌니”(딤후 2: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시돈) 지방으로 향하셨습니다(24절).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얼마 후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는 예수님께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짜늘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녀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2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개라고 부르십니다. 개는 당시 가장 경멸스러운 대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개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떡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29절). 그리고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기도 제목 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애와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홀이 풍성하여 함께 하신 사람들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까지 세밀히 관찰하시며 기진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4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요 1:14).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약 사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으로도 일곱 광주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눅 1:54). 공홀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 오십시오(약 4:6).

“...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홀을 기다리라”(유 21).

기도 제목 ① 공홀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어리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어리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내용이 독특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 그를 내게로 데려 오라 하시매”(19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곧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저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했으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들의 질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코 쉽게 고칠 수 없는 고질 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부탁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버지를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23절).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는 모두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24절).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 제목 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매오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47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구걸하여 하루하루 먹고사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자기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때 소경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 겹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50절). 그에게 있어서 겹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것은 추운 밤에는 이불이요, 낮에는 동냥을 얻기 위한 가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을 내어 던지고 뛰어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51절). 이 말씀이 끝나자 저는 곧 보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①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14절)고 저주를 하시고 이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20-21절). 사실 이것은 뭔가 이치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15-18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더불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즉,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유대교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타락한 신앙생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떠나 주님을 믿지 않는 원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며 곧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선과 외식을 다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헌금함에 두 렵돈을 넣은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연보궤를 바라보고 앉아서 무리들이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연보궤에 돈을 많이 넣는데 이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4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44절).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또한 성경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과부가 넣은 두 렵돈, 한 고드란트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따진다면 약 2,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입니다. 아마 다른 부자들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1,000만원과 2,200원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200원이 다른 사람들의 금액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넣었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며 넣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넣고 난 후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이 자기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종말의 징조와 그 때에 있을 핍박 그리고 성도들은 이를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는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또한 그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신자들을 공회에 남겨주며 회당에서 매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들이 관장들과 임급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들을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3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상상도 못할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 ① 나중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셨을 때 베드로는 그 아래 뜰에 있었습니다. 그 때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피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라고 그 사실을 부인하며 앞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비자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 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또 다시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며 주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였습니다. 이 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울며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열두제자의 우두머리인 수제자였으며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철저히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조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총독의 관제)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얹어 씌웠습니다. 자색은 왕의 의복의 색깔이요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네가 무슨 왕이냐'고 조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예를 표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돌들로도 당신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입김만으로도 천지를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신 분이 인간들에게 이 고초를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모진 수욕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며 침 뱉는 저 로마 군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당신의 신적 자존심마저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기도 제목 ①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위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무렵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향품은 부패한 시신의 악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귀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귀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이 세 여인이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돌을 굴러 줄까를 의논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11절).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하신 분이기는 하나 부활의 주님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2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여호와와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자연만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떨게 됩니다(3-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3-8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 1:1).

기도 제목 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1절).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신자들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셔야 하며, 우리 신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식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식물이 살려면 언제나 빛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일의 중심이 되셔야, 그 일들이 의미가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주 허탄한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이 끄는 데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 대로 끌려 갔느니라”(고전 12:2). 우리는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4-8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우상의 허탄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 들이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1:12).

기도 제목 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한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1-5절).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제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17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이전의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3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심각한 위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8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본문의 시인처럼 커다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민 20:16). 이렇게 시인을 돌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 닫혀있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껏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16:24).

기도 제목 ①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을 통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속적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함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2절). 그와 동시에 모든 민족과 백성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찌어다”(1절). 이 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어 언약을 체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요일 4:1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시련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11-14절).

혹시 여러분은 본문의 시인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않습니까? 시인도 사람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별과 같이 에워싸임을 받았으며(11-12절), 밀쳐 넘어짐을 당하였습니다(13절).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의 눈 밖에 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8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쓸모 없어 버려져 돌과 같은 그를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22절)라는 내용은 단순한 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요일 2:2).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무의미하게 치부하고 있으나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의 구주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행 4:1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교훈시로서 특히 말씀에 대한 시인의 진지한 자세와 말씀의 본질 및 기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 176절 가운데 네 절(84절, 121절, 122절, 13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말씀·율법·증거·법도·율례·계명·판단·규례·도와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들이 반복됩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8절을 한 단위로 하여 각 절의 첫 단어들이 동일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즐거워하다”(9회), ‘사랑하다’(11회), ‘지키다’(20회), ‘묵상하다’(8회), ‘기뻐하다’(3회), ‘사모하다’(2회). 이와 같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기뻐하며 영혼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앎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되며(103절), 새벽이 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위해 눈을 뜨게 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147절).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롬 1:16).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18절).

기도 제목 ① 말씀을 기뻐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1절). 시인이 간구했던 기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3-7절).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시인은(2-3절) 그 위협을 창사의 날카로운 살과 잘 꺼지지 않는 뜨거운 로뎀 나무 숯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4-5절). 시인이 자신을 해하려는 자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러한 시인의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시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더욱 사나운 기세로 싸우고자 달려듭니다(6-7절).

혹시 여러분도 본문의 시인처럼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헐뜯고 조롱하며 악한 말로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는 때(엡 2:13-15)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시 140:12).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엡 2:16).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엡 2:17).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엡 2:14).

기도 제목 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믿는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맞이하는 자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닥쳐온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결코 염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마 6:25-34).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처’라고 고백한 후(1-2절), 1인칭인 ‘나’에서 2인칭인 ‘너’로 바꾸어서 자신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3-8절).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육신의 발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험한 인생길의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성도들의 발을 지켜 주십니다(3절). 혹시 여러분은 본문의 시인처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아뢰어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시 28:7).

기도 제목 ① 도움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송요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번영할 때나, 안세 받을 때나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1-2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마 21:13).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비로소 성전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죄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는 선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요일 1:9).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행 20:28).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교회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길 원하십니다(요 4:23). 우리의 예배가 철저히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4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열납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날 위해 죽으셨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1절).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섬김의 눈과 같습니다(2절).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공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공활을 구해야만 합니다(3절).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는 공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어 주님의 구속 계획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조소하고 멸시합니다(4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벤전 2:9).

본 시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분에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만약 주님의 종이 된 상태를 압제라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가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마 25:21).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요 13:1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위협과 엄청난 해일이 우리를 쓸어버릴 기세로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3-4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울무가 찢어지고 새가 날아가듯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7절).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찮은 짐작처럼 이리저리 함부로 취급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할찌로다”(6절)라고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는 백성들입니다.

본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살아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전사로서 죄의 추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딤후 4:7). 그러기에 치열한 영적전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8절). 세상의 이해나 격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이나 핍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기도 제목 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안전한 요새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1-2절). 예루살렘은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가장 안전한 성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항상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요일 2:15).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5).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히 12:2).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자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1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합니다(2절). 열방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3절). 우리가 바로 이 포로들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삶 속에서 점점 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5-6절을 보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노예의 신분으로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이는 자유인으로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바로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의 열매를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갈 6: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씨를 뿌리지도 그 열매를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롬 8:12-14).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8).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입술 속에서 고백되게 하소서. ②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기업 단기선교사, 이복희 평신도 단기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모든 결과는 허망한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설령 자신의 수고로 집을 세우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을 지키고, 수고한 대가로 떡을 먹고, 자식을 낳아도 또 많은 자녀가 있어도 이런 모든 상황은 늘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전 12:8).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분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면(1절), 그곳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절망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게 하시어 자신들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왕하 6:14-17).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심이 된다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쥐고 좌지우지 하면서 최상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의 올무에 걸리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엡 3:17-19).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로 넘기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허사로다”(시 127:1).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화가 아니요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1절). 우리는 흔히 복이란 남들과는 차별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할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한 것을 먹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얻는 것,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복이지 결코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5절). 5절의 시온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시온산 위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 감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풍족한 상황, 혹은 세상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 하십시오. 그 분을 경외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복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현재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얻게 됩니다(6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롬 16:2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늘 좇으며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며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도” (엡 1:3).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3월 구역 공과 포인트

주 예수만을
온전히 전하라

주 예수만을 온전히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주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온 세계에 증거해야 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03/04	고전 10:21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전해야 합니다.
03/11	사 43:15-19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전하라
03/18	사 50:4-9	종려주일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전하라
03/25	행 10:34-43	부활절	부활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은총을 전하라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01 주의 만찬

| 포인트 |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전해야 합니다.

| 찬 송 |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고전 10:21 |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충성 10주 10

어느 때든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더없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의 만찬을 의례 치루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말씀으로

1. 주의 만찬의 기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전 10:16)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2. 주의 만찬의 의미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4)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의식을 그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떡과 잔이 자신의 몸과 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은혜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3. 역사적 의미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은 해묵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게 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했습니다.

4. 신학적 의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3)

초대 교인들이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6 : 57)

위 말씀에서 주의 만찬을 참여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5. 종말론적 의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우리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지만, 곧 임할 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어린양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그 날의 감격과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바울이 역사적, 신학적, 종말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썼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주의 만찬을 아무런 경외심 없이 그저 하나의 행사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281장을 부르시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6절은 눈을 감고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누어 보세요)

| 간절한 기도 |

1.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소서



02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 포인트 |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전하라

| 찬송 |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

| 본문 |

¹⁵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¹⁶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¹⁷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¹⁸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¹⁹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43:15-19)

남과 함께 그리스도 행을

우리들에게는 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늘 새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의 미래를 주장하고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까?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 43:19)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적 현상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본주의적 결정을 내리는 그 배후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2.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청정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있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 43:16-17)

【나도행을 할 때에 주의】

만일 하나님을 따르고 그 분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과거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맛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해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3.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 43:18)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지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로운 일들로 가득찬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실 것 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4.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왜 새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5.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월 1
6월 2
7월 3
8월 4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9월 5
10월 6
11월 7
12월 8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1월 9
2월 10
3월 11
4월 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또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나의 준비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자.
새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갖게 된 소망들을 나누자

| 간절한 기도 |

1.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2.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03 종려주일(PALM SUNDAY)

| 포인트 |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전하라

| 찬송 |

132장 (호산나 호산나)

131장 (주 예수 나귀타고)

| 본문 사 50:4-9 |

⁴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⁵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⁶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⁷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⁸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⁹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사 50:4-9)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고 조금 지나서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언제나 집중하시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깨어 있으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
도다 (사 50:4)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
엇입니까?

2. 말씀에 집중하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사 50: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사야 50장 4, 5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최우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3.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보고 듣는데 만족하지 않고 입술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 장: 28절

위 말씀을 지쳐 있는 자들에게 누가 전해 주어야 합니까?

□□□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려면 누구의 힘과 지혜로 해야 합니까?

4. 십자가를 지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50:6)

왜 주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진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
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
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
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짐에게 먹히리라 (사 50:7-9)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만난 도우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곤핍한 영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1).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 날이 이르면 반드시 육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종려 주일,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르고 싶으신
나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146장(저 멀리 푸른 언덕에)을 함께 불러 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1.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에게 민감하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3.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의 은총을 전하게 하소서

04 부활절(EASTER)

| 포인트 |

부활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은총을 전하라

| 찬 송 |

150장 (무덤에 머물러)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 본문 행 10:34-43 |

.....³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³⁹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⁴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⁴²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⁴³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행 10:34-43)

정말 부활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바울과 같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 여수를 힘 있게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하는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를 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십니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사도행전 10장 13, 15,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1. 복음 전파를 위한 만남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행 10:28)

고넬료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 전혀 유례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
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행 10:34,35)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 안에 있던 자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
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죄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질투와 미움, 자존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
과를 낳는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3.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행 10:40)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았던 하나님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 :

내 자신 :

4.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행 10:42)

주께서 승천하신 것,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 한 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은 어디(혹은 누구)에 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했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증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좇으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였던 그 소식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십니까? 기록하시고 기도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 전해야 할 분:

전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혹은 분):

| 간절한 기도 |

1. 부활의 좋은 소식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은총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2. 오직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주 성령께서 증거할 때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부활절 (행 10:34-43)

오늘은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곳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옴바로부터 30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옴바에 도달할 무렵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행 10:13).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행 10:20). 베드로는 즉시 그들을 맞아들였고 다음날 아침 옴바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복음전파를 위한 만남

고넬료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 전혀 유례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4,35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은 베드로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도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베드로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더 나아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인, 로마인, 다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종교지도자들도 모두 한 패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

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죄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질투와 미움, 자존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베드로는 이어서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40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도대로 행했고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오케스트라를 택해 최상의 연주를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책’은 하나님에 의해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련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가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거기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철혹 같은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광명한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상의 사랑, 최상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40,41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증인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42절)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만났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것,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43절). 이제 영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곳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했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증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예수를 좇으십시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3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이재영(1-8일), 김준희(9-16일), 황진섭(17-24일), 정성영(25-31일)

구역예배공과 : 위건량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